엔데믹 다가와도…인터넷 이용 패턴·시간 변화없다

2000명 조사…하루 온라인 동영상 시청 1시간 52분으로 전년과 비슷

유료 동영상 이용자 59% 넷플릭스…유튜브·티빙·쿠팡플레이 순 이용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 이용 등 온라인 생활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사 나스미디어는 지난해 12월 18~20일 국내 PC·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서비스 이용 행태 및 광고 수용 행태를 분석한 '2022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되던 시기 진행돼 코로나19 종식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나스미디어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응답자들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59분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견줘 5분 적은, 154분으로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0~30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2021년 조사결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재작년(2020년 조사결과)보다는 여전히 길었다. 40~50대는 2020년 이후 인터넷 이용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간은 1시간 52분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저녁 시간에 시청을 많이 하는 패턴도 유지됐다. 나스미디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패턴의 변화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봤다.

유료 동영상 경험률은 84%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증가했다. 유료 동영상 이용자의 59%가 넷플릭스〈사진〉를 이용했고, 이어서 유튜브 프리미엄(20.7%), 티빙(18.1%), 쿠팡플레이(16.9%), 디즈니 플러스(14.2%), 웨이브(13.7%) 순이었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 검색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지만, 동영상 시청채널인 유튜브에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 검색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53.9%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15.7%), 구글(14.6%)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보 검색 시 우선 이용하는 플랫폼 1~3순위를 모두 포함하면 네이버(86.7%)와 유튜브(60.3%)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전년 대비 1~3순위 이용률이 2.9%포인트 상승했으나, 네이버는 1.4%포인트 감소했다.

10~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유튜브를 정보 검색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인스타그램, 다음 등의 플랫폼은 '정보 검색'에서 특정 분야에 강점을 보였다. 구글의 경우 '학술·비즈니스 자료' 검색에서 강점을 보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여가·엔터·패션·뷰티' 정보 검색이 많았다. 다음의 경우 '정치·사회 뉴스'와 '생활 정보' 검색이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9일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하는 '스페이스X 드래건 인데버' 호.

처음으로 민간인만 탑승

지구저궤도 민간경제 확장 전환점

약 700억 원의 비용을 내고 열흘 일정으로 지구저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방문한 민간인들이 예정보다 닷새 더 머문 끝에 지난 25일(이하 한국시간) 지구 귀환 길에 올랐다.

민간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의 'AX-1' 미션에 참여한 이들 민간인 4명은 오전 10시15분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드래건 인데버'를 타고 ISS를 떠났다. 이 캡슐은 지구 대기권 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6시간 뒤인 26일 오전 2시 6분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의 대서양에 낙하산에 매달려 침수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8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캡슐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으며 애초 8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귀환 일정이 늦춰지면서 덤으로 7일 더 우주체험을 했다.

시업의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출신 마이클 로페스-알레그리아(63) 이외에 기업가 래리 코너(72),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출신 기업인 에이탄 스티브(64), 캐나다 금융가 마크 패시(52) 등 민간인만으로 구성됐다.

현역 우주비행사 사이에 민간인 관광객이 끼어 우주정거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승무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해 우주정거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액시엄과 NASA, 스페이스X는 이번 미션을 '지구 저궤도(LEO) 경제'로 불리는 우주 기반 민간 경제 확장에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 420㎞ 상공의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20여 건의 과학 실험과 생의학 연구, 기술 시연 등을 진행했다.

액시엄 측이 이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인당 5000만~6000만 달러(622억~7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래 계획된 기간에는 하루 14시간씩 실험과 화상회의 등을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기상악화 등으로 지구 귀환이 늦어지면서 한층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AX-1 지구 귀환이 늦어지면서 우주정거장의 캡슐 도킹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NASA의 정식 우주비행사를 태운 스페이스X의 크루-4 미션 발사도 덩달아 늦어져 왔다. 현재 크루-4 미션은 27일 오후에 발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 '포켓몬 폰' 판매 5분만에 완판

삼성전자가 닌텐도와 협업해 판매한 한정판 패키지 '갤럭시 Z 플립 3 포켓몬 에디션'〈사진〉이 출시 첫날 완판됐다.

지난 25일 IT업계에 따르면 포켓몬 에디션은 0시 삼성닷컴 구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약 5분만에 매진됐다.

삼성전자 공식 교육할인 매장인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는 오후 12시 40분께 완판됐다.

포켓몬 에디션은 11번가에서도 오후 1시 30분께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다.

포켓몬 에디션 상품은 갤럭시 Z 플립3 단말기, 클리어커버와 함께 피카츄 키링 포켓몬 팔레트, 포켓몬 도감 디자인의 가죽파우치, 몬스터볼 3D 그립톡, 인기 포켓몬 스티커 5종 등 포켓몬 액세서리가 들어있다. 가격은 128만400원이다.

포켓몬 에디션 완판은 올해 2월 SPC삼립이 16년 만에 출시한 포켓몬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켓몬빵은 재출시 40일 만에 약 1천만개가 팔리는 등 품절 현상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하려면 육류 소비 75% 줄여야

유럽인 기준 1인당 연 80kg→20kg

현재처럼 육류 소비가 과다하게 계속된다면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적어도 75% 이상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본 대학 '개발연구센터'(ZEF)의 마틴 카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자원 경제학 연간 리뷰'(Annual Review of Resource Economics) 논문을 통해 유럽인의 1인당 육류 소비가 한해 80㎏에 달한다면서 "인류가 유럽이나 북미인처럼 육류를 소비한다면 국제 기후 목표를 놓칠 것이 확실하며 많은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류 소비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는데, 연간 20㎏이나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현재 육류 소비량은 북미와 호주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인인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추동물이 이산화탄소(CO_2)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내뱉고, 방대한 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는 점 등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스테이크나 소시지 등 육류를 구매하며 지불하는 가격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곡물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은 "식량안보를 위해 동물에게 주는 사료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인류가 모두 채식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면서, 곡물을 재배할 수는 없지만 반추동물이 살 수 있는 초지가 있는 만큼 이런 곳에서 제한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육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카임 교수는 육류 소비 줄이기 해법의 하나로 동물기반 식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